고은 불교대하소설

술독에 술이 담긴 것처럼 꽃망울이 벙글어 피어난 것처럼 우녀는 당연히 천인이 되었다

"우녀보살" 33천의 천인들 가운데서 인담의 소리가 들렸다

145

수미산의 바다 깊은 곳은 도대체 얼마나 된단 말인가. 우선 인간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 섬부주 밑으로 진흙층과 백토 적토 황토 청토 등을 각각 5백유순과 각각 1천유순의 4천유순을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여러 지옥들이 커다란 세계를 이루고 있다.

등활, 흑승, 중합, 규환, 대규환, 초열, 대초열지옥이 각각 깊이 5천유순이다가 그 밑으로 아주 커다란 가로 세로 2만유순의 무간지옥이 그 깊이도 2만유순이나 되는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지옥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인 것은 그만큼 그곳을 쓸모없는 곳으로 비워두는 중생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곳은 더많은 중생들이 와야할 곳이고 왔다 가야할 곳이었다. 그곳을 사바세계의 척도로 말하면 죄업과 악행의 귀결로 보지만 아주 냉정한 눈으로 보자면 지은 것을 더도 덜도 말고 가장 정확하게 받는 것이다. 그 주고 받음이 죄악과 고통의 관계이다.

우녀의 아뢰야식은 그 지옥까지 살펴볼 겨를이 없었던가. 곧장 삼십삼천의 세계로 올라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밝은 영식(靈識)이 여기에 다다르기 전에 예성강 기슭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의 명복을 비는 것을 안 것처럼 그가 지옥의 여러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그의 영식의 어떤 파편은 주인 몰래 지옥의 여러 곳을 그곳의 고통을 견디면서 찾아다님으로써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지옥 중생이 얼마나 되는가를 짐작하게 된 것이다.

무간지옥은 극한의 고통이 한 찰나도 틈이 없는 지옥이다. 그뿐 아니라 좀처럼 그곳에서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저주받은 지옥이다.

그 위에 대초열지옥이 있다. 중생마다 제 몸에서 사나운 불길이 일어나 서로 서로 불태우는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다.

그 위의 초열지옥은 그 불길이 몸에 붙어 굴러다니는 곳이다.

대규환지옥은 소리를 질러대며 고통을 받는 곳이고 규환지옥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하여 울부짖는 소리판인 곳이다.

그 위로 중합지옥은 많은 고통이 한꺼번에 모여들고 있는 곳이고 흑승지옥은 검고 굵은 새끼줄로 몸을 칭칭 감아 톱으로 켜는 곳이다.

등활지옥은 도끼로 찍고 창으로 찌르

수많은 전생(轉生)들

고 맷돌로 갈고 방아로 찧어 죽였다 살렸다 하는 곳이다.

어디 그 뿐인가. 그 지옥들의 부속인 부지옥들이 더 받아야 할 고통을 대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덟개의 뜨거운 지옥과 부지옥들에 굽는 곳, 송장과 똥으로 찬 곳, 칼과 창, 뜨거운 용암의 곳들이 있는 것과 반대로 8한지옥은 추위의 극한으로 된 곳이다.

알부다는 찬바람이 몸에 불어닥쳐 몸이 부풀어 오르고 이자부와는 부푼 몸이 터지는 찬바람의 세계이다.

아타타와 아파타 그리고 호호바 지옥들은 다같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저절로 중생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이름 지어진 지옥이다. 온바라 지옥은 추위로 몸이 퍼렇게 되어 청련화지옥이라 한다.

발트마는 홍련화인데 몸이 얼어서 푸르다 못해 붉은 빛으로 되어 홍련화이다.

이밖에도 고지옥(孤地獄)이 널려 있는데 그것은 지옥세계에만 있지 않고 지상의 하천이나 산기슭, 광야 등에 있거나 허공에도 널려 있는 작은 지옥인 것이다.

우녀의 영식은 이런 지옥을 두루 살펴보는 그 영식의 파편을 거둬 들여 하늘의 세계로 모이도록 하였다.

또한 그 영식은 아귀계와 축생계 아수라계도 다녀왔다.

아귀계는 지하에도 지상의 인간계에도 하늘에도 널려 있다. 아귀는 거의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축도 있고 살과 가죽 그리고 혈맥이 바싹 말라버리고 머리털이 귀신형용으로 되고 항상 혓바닥으로 제 입을 핥아야 한다.

생물을 보자마자 그것이 썩은 고름물이 되며 더욱 몸이 타들어간다. 또 똥조차도 먹을 수 없어 기갈이 들리기도 한다. 그러다가 한번쯤 배가 부르게 먹고나면 그것이 바로 악업이 되어 배고픔의 고통을 낳는 것이다.

축생계는 그 본고장이 바다였다. 그러다가 바다와 민물, 육지 하늘의 각처로 퍼져 나갔다. 그것은 아귀계의 본고장이 지하 염라국인 것과 대조된다.

바다로부터 축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곳이 인류와 생물이 시작된 것을 뜻한다.

인간조차도 본래는 여러 동물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

축생의 종류는 피모(被毛) 대각(戴角) 인(鱗) 갑(甲) 우모(羽毛) 사족(四足) 다족(多足) 유족(有足) 무족(無足) 수행(水行) 육행(陸行) 공행(空行) 등이다.

그 수명도 여러 종류에서 한 찰나의 수명, 하루살이, 보름짜리, 한달짜리, 1살짜리, 10살짜리, 백천억세짜리와 일체(一切) 수명의 무한짜리의 수명들이 있다.

아수라는 먼저 그 중생의 용모가 추악하다. 그러나 아수라는 추악한 대신 아주 힘이 세다. 그래서 제석천 및 사천왕과도 자주 싸움을 하는 것이다.

아수라에게는 미녀가 있으나 좋은 음식이 없다. 반대로 제석천은 좋은 음식은 넘치고 있는데 미녀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항상 싸워야 하였다. 그런 싸움판이 곧 아수라장 혹은 수라장이라 한다.

수미산 북쪽 그 바다 밑에 2만1천유순을 지나면 나타나는 아수라궁이 있다. 제1궁의 밑 2만1천유순에 있는 용건궁, 제2궁의 밑 2만1천유순에 있는 화만왕궁, 제3궁 밑 2만1천유순의 곳인 비마질다라왕국 그리고 수미산의 동과 서쪽으로부터 1천유순 밖에 있는 비마질다라왕궁이 각각 있다.

수라궁에는 아주 악한 수라중생으로써 인간계의 산중에 살고 있다.

또한 귀신에 가까운 중생은 바닷속에 있고 축생에 가까운 수라중생은 바다 밑에 있다.

그것은 태(胎)로 알(卵)로 습(濕)으로 화(化)로 태어난다.

우녀의 영식은 그 파편들을 보내어 이런 지옥 아귀 축생계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그의 수행으로 인한 선업 때문에 그런 곳에는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33천에 머무는 일이 우주에의 첫 등장이었던 것이다. 그 영식이 다다른 곳은 하늘 속의 궁전이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상주하는 천인 남녀만이 그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 환영하는 마당에는 이제까지 어디서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옛 도반들이 거의 다 낯익은 얼굴로 화해서 살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영식에 낯익지 않은 얼굴들도 아주 많았다.

지난번 사바세계 무욕도 일대에 있었던 해일로 말미암아 희생된 사람들이나 청나라 청주해안의 사람들과 남해까지 올라왔던 안남사람들, 일본사람들도 죽어서 다시 태어난 천인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본즉 우녀의 영식이 가장 늦게 이 하늘나라에 도착하였다.

"우녀보살!"

"우녀님!"

우녀는 그의 영식으로 하여금 하나의 몸을 받은 그 자신을 깨달았다. 그는 놀랐다. 그의 몸에는 벌써 하늘의 옷도 입혀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구름자락과 같은 것이었다.

그의 몸도 사바세계에서의 몸인 것처럼 눈과 귀가 달려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상의 몸 그대로를 필요할 때마다 옮겨놓은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와 갑작스러운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일이 송구스러웠다. 태어난다는 절차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어디서 와서 이곳의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준비없는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하였다. 우연인지도 몰랐다.

가장 완숙한 필연이야말로 이렇게 우연으로 꽃피우는 것인가.

과연 새로운 33천의 천인으로 된 우녀는 바위덩어리가 갑자기 물이 된 느낌이 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미 그 놀라움도 가라앉았다.

그의 탄생은 이렇게 별다른 과정없이 술독에 술이 담긴 것처럼 당연하게 이루어졌고 맺고 있던 꽃망울이 벙글어 피어난 것처럼 이루어졌다.

구름 한 자락이 향기를 풍기며 지나간다.

그때에야 우녀는 그의 새로운 귀에 들렸던 그의 이름을 떠올렸다.

다른 세상에서는 이전의 세상에 있었던 어떤 강한 것도 다 잊어버리지 않을 수 없다. 이전의 세상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일이란 지극한 영험(靈驗)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녀의 수행이 그런 영험의 높은 단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녀 자신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이곳에서 환영하는 천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해지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우녀는 그를 둘러싼 천인들에게 무척 감동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새로웠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현기증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았다. 새로움이란 이렇게도 어지러움이었다.

그는 8만유순의 높이로 솟아 올랐던 것이다. 실로 아스라한 하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의 영식은 이곳으로 오르기 전에 저 지하 깊숙히 3만유순 가까이 내려갔다 온 나머지 거기에 수미산의 해발 8만유순을 보탠 것이다.

실로 천인의 비상으로도 이런 순례는 어려운 일 중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곳 수미산 정상의 세계에 이르러 그와 똑같은 과정을 지나서 태어난 천인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곳에는 지상의 여러 나라에서 온 천인들이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서로 달랐으나 그들이 쓰는 말은 이곳 33천의 공용어 하나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 중의 누가 어떤 나라의 말을 쓴다 하더라도 그 말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기도 하다.

"우녀보살!"

많은 천인 가운데서 인담의 소리가 들렸다. 우녀의 새 귀가 번쩍 열렸다.

그림 · 조향숙

— 禪書의 白眉, 宗門의 寶庫

碧巖錄譯解

일우스님이 생존시 현토(懸吐)하시고
淨圓스님이 한자, 한획 혼을 기울여
필사와 역해하신 것을 고급한지에
담아 낸 소장가치가 높은 벽암록 완결판!

· 본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선에 뜻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原文에는 친절하고 철저하게 토를 달고, 역해에는 번역과 함께 해설을 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나 술어 古事들도 따로 색인하지 않고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본문에서 처리를 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 「벽암록 역해」를 보지 않고 벽암록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벽암록의 이해없이 하는 참선은 마치 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것처럼 바른 선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 달마가 불심천자 양무제를 뿌리치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로 간 까닭을 아십니까?

· 본서와 인연 맺는 분
임제의 「할」소리를 한 번은 들을 수 있고
덕산의 「방망이」한대 쯤은 얻어 맞을 수 있습니다.

碧巖錄
:중국 宋나라의 원오(圜悟)
설두(雪竇)선사가 지은 송고집(頌古集)을
評唱한 선수행의 뛰어난 지침서.
10권. 碧巖集

● 고급한지, 수제본, 케이스入 ● 정가 330,000원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 738-6270, 735-7202 팩스: 733-1016